

축 사

(제34회 향토문화연구 심포지엄)

2022. 10. 7.(금) 10:30 / 완도생활문화센터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반도 해양문화의 보고(寶庫), 건강의 섬 완도에서 열리는 제34회 향토문화연구 심포지엄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술대회를 주관하신 전남문화원연합회 송시종 회장님을 비롯한 22개시·군 문화원 관계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생산적이고 성공적인 학술대회를 위해 좌장을 맡으신 강봉룡 교수님과 주제 발표 및 토론에 나서시는 학계,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더불어, 학술대회를 후원하고 계신 전남도 김영신 관광문화국장님, 신우철 완도군수님, 이철 전남도의원님과 뜻깊은 행사에 함께 하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완도문화원을 역동적으로 이끌면서, 학술대회를 완도군에 유치하는 등 완도문화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새로운 지평을 열고 계시는 추 강 래 완도문화원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완도주민들은 지역에서 개최하는 향토문화학술대회에 대해 관심과 함께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부의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 건립 지역 선정에 따라 현재 서남권 지자체들이 전쟁을 방불케 하는 유치전을 펼치

고 있습니다.

때맞춰서, 한반도 최고의 해양문화 보고인 완도군에서 해양문화를 주제로 열리는 학술대회는 해양수산박물관이 완도군에 유치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제시하는데 일익을 담당해 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34회 향토문화연구 심포지엄이 우리 주민들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해 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축사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